전주역사 전면개선 '시동' 걸었다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시"

전주역사 전면 개선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전주역사 시설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시행'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공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전주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등으로 역사 시설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1월 4일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실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전주역사 시설개선 규모,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공문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주역사 시설개선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주역사는 1981년 신축됐지만 노후화되고 협소할 뿐 아니라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1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개선사업이 요구되었지만 코레일 등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수는 255만명으로, 2014년(233만명) 대비 21만명 9%가 증가해 서울역 제외한 전국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KTX 주요정차역 일일평균 이용자 1인당 평균면적이 1.53(㎡/명)인데 비해 전주역은 0.23(㎡/명)으로 가장 낮다.

참고로 노선별 역사 1인당 면적은 경부선 2.16㎡/명, 경전선 1.74㎡/명, 호남선 1.63㎡/명, 전라선 1.18㎡/명으로 역시 전라선이 가장 낮다.

또한 전주역은 유사 규모 이상 도시 KTX역 중 유일하게 전면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몰려드는 승객과 관광객들을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부터 국토부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에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국토부 차관과 철도공사 사장,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전주역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정동영 의원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수긍했다.

정동영 의원은 "사업 시행이 늦었지만 시민과 도민들이 함께 축하할 일"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전주에 걸맞도록 현대화되면서 전통미를 갖춘 전주역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 'SW강소기업' 7개사 선정

전북도가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발전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비전을 제시한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7개사를 'SW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현판식' 행사에서 올해 '전라북도 SW강소기업'에 선정된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 7개사 대표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강소기업 선정은 먼저 순수SW기업과 융합SW기업으로 분류한 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13개 기업 후보군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매출 증가율, 신규고용인원 수, 기업 혁신의지 등 정량과 정성의 균형 있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난 11월 17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융합SW강소기업에는 (유)시원, (주)헤드아이티, (주)리퓨터, (주)애니설리반학교 등 4개사, 순수SW강소기업은 (주)아이엠시티, (주)새눈, 웹프라이스(주) 등 3개사이다.

(주)아이엠시티의 신광식 대표는 "그동안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전북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강소기업 선정은 소프트웨어 기업인의 사기를 복 돋아 주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 이성호 미래산업과장은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전북도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현판식' 행사에서 올해 '전라북도 SW강소기업'에 선정된 7개사 대표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생생마을만들기 도민설명회' 열기 후끈

우수사례와 성과 · 개선방향 ·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쏟아져

생생마을만들기 도민설명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기획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지난 16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5개 마을협의회장, 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장, 사회적경제적지원센터장, 생생마을 참여마을 추진위원장, 마을 주민, 시군담당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삼락농정, 생생마을만들기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6 생생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단계별 마을의 우수사례와 추진 노하우 발표, 2017년도 생생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16개 공모사업에 대한 개요, 공모시기,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 생생마을만들기의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에 대한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의 토크콘서트가 열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부대행사로 열린 도내 토종종자 및 슬로푸드 전시,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성공사례, 마을통합협동조합 가입 안내, 생생마을만들기 페이스북 '전북생생마을' 홍보 코너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몰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사업설명회 자리가 매우 부족했고, 여러 부서별로 개최되다보니 여러번 도청에 와야하는 불편한 점이 해소됐다"며 "마을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여러 사업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제공해줘서 앞으로는 마을에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설명회자리에서 2016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성과와 우수사례, 2017년 추진방향, 개선사항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의 자리가 열려, 향후 생생마을만들기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안재용기자

전북쌀 '한국 대표쌀' 명성 재확인

'방아찧는날골드' 최우수상 · 탑마루골드라이스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에서 10개 명품쌀 중 전북도는 2개 브랜드가 선정돼 '대한민국 대표쌀'이라는 명성을 재확인했다.

지난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김제 이택RPC가 최우수상(방아찧는날골드)을 익산 명천RPC가 우수상(탑마루골드라이스)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동안 쌀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실시됐던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가 올해부터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평가'로 변경됐으며, 쌀 분야 중 국내 최고 권위의 평가이다.

명품쌀 추천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판매 우수 브랜드, 농협, 민간 RPC협회, 시.도에서 2점씩 등 총 30개 브랜드 쌀을 평가해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8) 등 10개 명품쌀을 선정했다.

추천된 브랜드 쌀에 대해 품종 순도, 품위, 전문가.소비자 집단을 통한 식미, 표기사항, 매출액 등의 평가를 2회에서 3회를 확대하는 등 연중 균등한 브랜드 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전북쌀의 우수성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시군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밥맛 좋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등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올해 폭염, 수발아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린다"며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 중 하나인 제값받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정읍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 정우의 육용오리 농가와 고부의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특히 오리농가가 아닌 닭농가에서 AI 의심축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의심축이 신고된 정읍시 정우면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는 1만5,500마리의 오리를 사육 중이며, 정읍시 고부면의 한 토종닭 농가는 8,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오리농가는 전화예찰을 하던 중 AI가 발견됐고, 토종닭 농가는 출하 검사에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AI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시군 방문 금지 등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와 부안, 고창, 정읍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공무원교육원, 핵심리더과정 수료식

전북공무원교육원은 지난 16일 제13기 핵심리더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행정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가치 확립, 직무역량 향상, 소통과 협업능력 배양 등 창의와 인성을 갖춘 역량있는 중견관리자 양성 과정이다.

교육생들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 및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현장체험, 연구활동 등 이론수업과 참여형 수업을 병행 44주간 1,470시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또한 전북도정 주요추진과제인 관광 활성화, 삶의질 향상, 일자리창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농업농촌활성화 등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종합성적, 논문발표, 자치활동유공 등 17명의 교육수료생들에게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및 교육원장의 상이 수여됐다.

공무원교육원 이래성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개인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돼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희망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명단

▲고창군 부안면(12월 15일)
- △덕흥마을 70,000
- △상포마을 220,000
- △봉오마을 90,000
- △안현마을 180,000
- △신기마을 90,000
- △신흥마을 120,000
- △용흥마을 120,000
- △상굴마을 150,000
- △반월마을 140,000
- △용산마을 380,000

**계 1,560,000원

▲고창군 심원면(12월 15일)
- △월산마을 272,000
- △사등마을 355,000
- △용기마을 245,000
- △수다마을 144,000
- △예동마을 50,000
- △김경옥씨 50,000
- △김민선씨 122,000

**계 1,238,000원